

25. 왜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나요?

2015.03.16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클레어) 오 주님, 이것이 왜그러죠? 저는 때때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 때가 있고, 다른 날들은 그 느낌이 멀리 사라지고 평상시 같이 느껴져요.

(예수님) 그건 인간의 본성이야.

(클레어) 저는 그것이 별로 좋지 않아요. 오, 언제인지 모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은 고통스러워. 나는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내가 가서 지구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성취되어야 해. 비록 내가 이 모든 것의 필요성을 완전히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나의 아버지의 뜻이야.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나에게 정말 매우 깊은 고통이야. 하지만 내 사랑아, 이것들은 너희들의 위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머지 세상의 길에 설득당할 필요가 없어. 나의 신부들은 이미 나의 곁으로 모였고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것은 완고한 사람들을 위한 거야. 자만함과 자기의존 그리고 자기만족으로 가득차고, 여러가지 욕망과 정욕에 눈이 먼 사람들을 위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해.

(클레어) 와 주님, 주님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모든 것들이 있으니 그들은 반드시 심각하게 어려운 경우들이겠어요.

(예수님)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 끔찍한 동물들을 번식시키고, 전염병과 역병을 일으키려 지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래, 그들은 심각한 태도의 교정이 필요해. 그들을 위해 내가 계획한 일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을 거야.

나와 내 아버지가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 여러가지 많은 선택을 숙고 할 것이라고 너는 생각하지 않니?

(클레어) 네, 그렇게 생각해요. 비록 하나님이기 때문에 숙고하지 않아도 될 지라도요..

(예수님) 맞아, 우리는 대화를 해, 우리는 정말 그래. 고려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수십년전에 순수한 기술을 주었어.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들을 전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어.

그들은 이기적인 야망이 너무 강해서 심지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눈이 멀었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이 한가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이 자유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 아니, 그들은 그것을 숨기고 그 자원을 가져와 전쟁과 파괴의 무기로 만들었어. 그리고 인류에 자유 에너지의 혜택을 박탈하였어.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

(클레어) 네, 주님. 하지만 순수한 인류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쉬운것 같아요.

(예수님) 하지만 인류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순수하지 않아. 음란물, 노예, 성매매, 가진 것이 거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서로의 것들을 훔쳐. 통의 전체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썩었어.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반드시 하나님에의해 규제되어야해. 사람은 사람을 규제할 수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하기 쉬우며, 너무 약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쉽게 설득당하기 때문이야.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해. 나는 반드시 돌아가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부패, 타락, 오염을 파괴하고 지구 전체를 다시 채워야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잠시만 기다려줘 나의 작은 아이야.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클레어) 오 예수님, 이것은 영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매일 더 늙어가면서 도처에서 만연하는 타락함에 더 환멸을 느껴요.

(예수님) 알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체력을 주었으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견딜 수 있을 거야. 나는 너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붙들고 있어 내 사랑아.

(클레어) 그래서 오늘밤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결과의 필요성. 사람과 사탄의 탓으로 돌려야 할 많은 것들을 나에게 탓하고 있어.

(클레어) 그것은 불공평해요!

(예수님) 나도 그것을 알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가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자신들이 알지 못해. 이것은 실제로 그들의 문제들이 오직 그들자신에의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술주정뱅이와 같아. 그래서 오히려 범인을 지적하는 것보다 그냥 나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더 쉬워.

(클레어)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때 주님께서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을 죽인것들을 생각해요.

(예수님) 맞아. 왜냐하면 악마들이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아기들을 그들의 신인 몰록(혹은 사탄)을 위해 붉고 뜨거운 황동 가마솥에 바쳐질때 너희들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야. 아기들이 공포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 너희들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바칠때 너희들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암과 같은 영적 질병이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들에게 심겨진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야. 적어도 무고한 아이들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어. 만약 이 아이들이 성장하였다면, 그들은 무고한 아이들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지옥에 떨어졌을 거야. 세상에는 보이지 않고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아.

‘하나님’을 탓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면서 죄많은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쉬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고, 듣거나 순종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야. 모두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종교전쟁등으로 여전히 나를 비난해. 그들은 줄을 당기는 실제 손가락들을 보지 못해.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어. 그들은 선과 악의 차이를 인식해. 그들은 내가 한 무리의 사람들을 칼로 내려치면, 그 무리의 사람들은 지옥에 빠져 사탄을 위해 살고 사탄의 생활방식을 전파하기 때문이라고 믿을만큼 나를 잘 알아. 그리고 심지어 그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교도방식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을 내 성전에 일부로 통합시켜 그들의 몰락을 일으켰어. 너희들은 선과 악을 섞을 수 없어. 이 두가지는 서로 상쇄해.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비뚤어질 상황으로 가게했어. 돈과 영향력을 위해 솔로몬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공경하는 비밀의 방을 짓도록 허락하였기 때문이야. 이것은 솔로몬이 아내로 취한 첫번째 이도교 여자와 함께 멸망할 운명이었어. 이것이 너희들의 교훈이 되게해라. 하나의 썩은 사과가 통 전체를 망칠 수 있어. 여성의 아름다움과 위로만큼 좋은 것은 없어. 이것은 역사의 흐름을 형성하였고 많은 문명의 몰락을 가져왔어.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을 나에게 탓하는 것은 무지와 자만함에서 나오는 거야. 인간은 자신이 한 일을 알거나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물론, 그들은 좌절하게되거나 혹은 그들이 쓸데없이 저항하는 것을 교정하고 싶지 않아해. 그는 계속되는 죄많은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를 탓해. 내 사랑아, 이것이 내가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성취해야하는 이유야. 사람은 그들이 자신에게 한 일과 그것이 마침내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는지 알아야해.

내가 하는 어떤 일도 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만, 사람은 진노의 의미로 경험해. 그들에게 이것은 보복을 의미해. 나에게 이것은 교육이야. 고통스러운 교육. 하지만 그들이 만든 침대에서 그들은 반드시 자야해. 심지어 그때에도 끄떡할 수 있었던 많은 일들을 내가 막았지만, 그들은 나의 자비를 부인하였어. 천국에서 많은 것들이 너희들에게 명확해질 것이고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러므로 다가오는 상황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둬라. 그것은 나의 보복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결과들이야. 그것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그들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동기에 사랑이 있어. 다른 이유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영혼을 지옥에 가두어도. 이것은 그들이 원한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야. 내가 어떻게 자유의지를 무시할 수 있겠어? 나는 사람이 선과 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자유의지를 주었어. 내가 뭘 더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클레어) 사람들이 너무 눈이 멀어서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들에 대한 장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퍼요. 그들은 사탄의 도움으로 그렇게 해요.

(예수님)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반드시 다시 바로잡아야 하는 역사의 결정적인 시점에 이르렀어. 자만함과 오만함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고, 타락함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다시 주어져야해.

나는 갈 거야. 지금이 그 때야.